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29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

(16시15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윤한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증인과 참고인은 일반증인 32명, 참고인 9명으로 각각 출석요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 시간은 오후 2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신청 위원께서 사정변경 등으로 철회를 요구하거나 또 출석일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신장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강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장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장식 위원** 먼저 여야 간사님들 협상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청한 증인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는데요, 특히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한화오션 정인섭 대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수협중앙회 노동진 회장, 분명히 정무위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룹 총수이거나 그룹 대표라는 이유…… 김동관 부회장은 그룹 총수도 아니에요. 한화오션 정인섭 대표도 그룹 대표도 아니에요. 그런데 빠졌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괄해서 빠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특히 수협중앙회 회장 부당 대출 건으로 요청했는데요 관련 대출이 정치적 연관성이 있다, 도이치모터스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권과 연관된 부당 대출은 앞으로 국회 정무위에서 못 부르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고요.

개별적인 건들을 보면서 가능한 한 채택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득이 빠야 하는 사람을 협의하는 것이 협의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히 종감에서도 금융 종감에는 중·참고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봐야 되는지 저는 금융 종감과 관련해서라도 양당 간사 간에 새로운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양당 간사님들 반드시 이 부분 좀 반영해 주세요.

.....

○**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그러면 유영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이강일 위원님 하십시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증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은행 지주 회장 증인을 신청했는데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증인에서 빠져 있는데, 물론 간사들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증인 선정을 하신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해당 의원실에 아래 아래 돼서 증인에서 빠졌다 정도는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지난번 국감 때도 그렇고 국감 때문에 지주회사들이 다 출장 잡아서 갑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3주를 가더라고요. 3주를 가는데 회의가 어디서 열리느냐 그랬더니 실무자가 대답을 못 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금융지주 회장들이 국감을 우습게 알고 가는 것을 그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치하면 저희가 다른 그룹 회장들에 대해서 증인 채택하는 것과 굉장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한홍** 잘 알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 청주 상당 출신 이강일 위원입니다.

이번 2025년 국감은 특히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졈 기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중인 신청을 작년과 올해 계속 연거푸 하고 있는데 두 번 다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이고요.

작년에 더본코리아 공모가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일인기업이기 때문에, 스타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문제점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지금 그런 문제가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국감장에서 따지지 않는다면 어디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 나와 있고요.

연돈볼카츠 같은 경우는 혀위·과장 광고로 해서 공정위 조사 중입니다. 결국 브랜드 실패를 인정해서 리브랜딩 작업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국감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따져 물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 사과하라면 사과해야 될 문제고요. 진짜 따져 묻고 두려움 없이 국감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와서 국민들한테 시원스럽게 명명백백히 밝혀 주고 사과할 것 사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2년 연속해 가지고 국감 제1 순위에 신청하고 있는데 이것 빠진다면 국회의 권위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다음 이어서 존경하는 김남근 위원님.

○**김남근 위원** 저는 삼성생명 대표를 중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지금 삼성생명이 70년대, 80년대 유배당 계약자들 153만 명한테 배당을 해 줘야 될 돈이 한 2조 8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나이가 지금 거의 다 70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계약의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꼭 지금이 아니면 아마 이 문제를 다시 규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이나와서 계약에서 약속했던 배당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두기 때문에 회계기준도 바뀌기 때문에 그 회계기준에 따라서 꼭 이행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꼭 규명하는 것들이 필요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진건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억밖에 안 되는 자본금에 자기 총수들의 개인회사에 600억이나 대출을 해 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경우였고 전형적인 부당 행위인데도 이게 언론사 대표기 때문에 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저는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듯이 증인은 최대한 채택해 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양 간사님께서 충분히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에서 국민들한테 이러한 내용들이 실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증인 채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간사님과 위원장님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원칙들과 절차들을 마련해 주셔서 채택된 증인들도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후조치를 엄격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민병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승원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민병덕 위원 은행장들은 어디 하늘 위에 있습니까? 은행장들을 매번 뺍니다. 은행장들이 이번 부당한 가산금리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한테만 얘기했더니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부당한 가산금리를 은행들이 취하고 있고 그게 얼마인지에 대해서 제가 물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은 사회공헌활동을 엄청나게 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내용을 주지 않습니다. 다 자기 홍보 활동을 사회공헌활동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행장을 불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외 플랫폼 왜 안 부릅니까? 네이버하고 똑같은 금액의 매출을 올리는 구글이나 이런 데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빼돌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재나 이런 것은 하도급 건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 갑을관계에서 수퍼갑인 대기업이 일감몰아주기를 하거나 부당 지원 행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밑의 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큰 구조의 기득권과 관련된 싸움들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을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여기에서 해결합니까? 1년에 딱 한 번 대기업이 국회의원들 무서워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것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김승원 위원님 해 주세요.

○김승원 위원 우선 양당 간사님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보니까 21일 날 금감원 증인은 4명에 불과하고 주로 14일 날 편중되어 있는데 마침 저희 의원실에서 21일 날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게 지금 해외에 있는 부동산 관련된 펀드를 팔면서 위험요소에 대해서 아주 부실하게 기재 내지 설명을 했다는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향후 해외펀드들이 국내에 와서 직접 해외펀드를 판다고도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인을 다시 한번 협의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한홍 알겠습니다.

○강민국 위원 제가 답변을 할까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요, 어차피 지금 간사님들이…… 워낙 많은 중인 요청이나 참고인 요청에 대해서 두 분 간사님들이 협의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필요하면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안 나온 이야기라도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간사님들이 좀 더 의논해 주시고 협의가 되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의결하고 정 안 되면 국감 기간 중에라도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일 위원 종감도 있지 않습니까, 종감.

○위원장 윤한홍 종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정도로, 그동안 간사님들 고생하셨는데 이 정도로 마치고 추가로 두 분의논 좀 하시라고 그러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32인)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김영섭	KT 대표이사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김범석	쿠팡 의장		10. 14.(화)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홍종민	트립닷컴 한국지사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노진서	LX하우시스 대표		
장보환	(주)하남에프앤비 대표이사		
송종화	교촌F&B 대표이사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황성혜	구글 부사장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10. 20.(월) 금융위원회	
오경석	업비트 대표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김윤석	신협중앙회 회장		
김 인	새마을금고 회장	10. 21(화) 금융감독원	
이정의	한국ESG기준원 부원장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권오성	현대위아 대표이사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이사		
이종근	명륜당(명륜진사갈비) 대표		
김형산	더스윙 대표	10. 28.(화) 종합감사(비금융)	
문호상	프리드라이프 대표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		
채정식	씨엠엔피 대표		
한혜진	팀플러스 대표		
김서영	로보락코리아 대표		

참고인(9인)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육성권	법무법인 지음 상임고문		
송명순	던킨도너츠 당진기지시점 가맹점주	10. 14.(화) 공정거래위원회	
김현수	현글라스 대표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주 대표		
이의환	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대책위원장		
김홍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안부현	더스윙 대리점주	10. 28.(화) 종합감사(비금융)	
성낙훈	명륜진사갈비 양산덕계점장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출석 위원(21인)

강민국 강준현 김남근 김상훈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박찬대
 신장식 유동수 유영하 윤한홍 이강일 이양수 이인영 이정문 추경호 한창민
 허영

○출장 위원(1인)

김재섭

○첨가 위원(2인)

박범계 이현승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최기도